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생명과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Ames, Iowa State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2023-2024)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아이오와 주립대학교는 아이오와주 Ames에 위치해 있습니다. Ames 도시 자체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로 인해 만들어진 도시라 캠퍼스가 중앙에 있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잔디밭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시 탓에 놀거리는 크게 없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조용합니다.</p>
2023-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BIOL 155 HUMAN BIOLOGY 인간 생물학, 3학점. 인터넷 강의입니다. 생물학 초보 분들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매주 풀어야하는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PPT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p> <p>BIOL 312 ECOLOGY 생태학, 4학점 (수업 3학점, 실험 1학점). 수업과 실험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험 과목을 들어야만 학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고 Top Hat을 이용한 퀴즈가 있습니다. 대신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실험 과목은 매주 1번이지만 실험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리포트 비중이 꽤나 커서 생태학 수업을 듣는다면 실험 수업을 집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p> <p>BIOL 365 VERTEBRATE BIOLOGY 척추생물학, 4학점 (수업 3학점, 실험 1학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이고 Top Hat 퀴즈와 중간 시험, 기말</p>

	<p>시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수업이 ppt 위주로 진행되어 수업을 따라가기에 편합니다. 수업 중 3번 정도 그룹 수업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따라가기 좀 어려웠습니다. 실험 수업은 2주마다 한 챕터씩 진도가 나가며 다음 챕터로 나가기 전에 쪽지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외우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은 생태학보다 간단해서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해부와 표본을 보며 이론과 비교합니다. 2학기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입니다.</p> <p>KIN 122 BADMINTON</p> <p>배드민턴, 1학점. 교양으로 신청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학기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총 3번이고, 출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학점 채우면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p>
<p>2024-1학기 수업</p>	<p>BIOL 314 PRIN MOLEC CELL BIO</p> <p>분자 세포생물학의 원리, 3학점. 일주일에 총 3번 수업합니다. 비영어권의 교수님 3명이 번갈아가며 강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발음과 조금 난해한 내용 때문에 수업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Top Hat을 이용한 퀴즈가 수업 중간에 있고,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과 기말 시험은 집에서 오픈북으로 응시할 수 있어서 시험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온라인 퀴즈가 있는데, 어려워서 시간을 꽤 많이 투자해야 했습니다.</p> <p>BIOL 315 BIOLOGICAL EVOLUTN</p> <p>생물학적 진화, 3학점. 저번 학기의 척추생물학 수업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신청하게 된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 합니다. 진화와 관련하여 꽤 깊게 파고들기 때문에 생물학의 기본 지식이 없다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중간에 Top Hat을 이용한 간단한 퀴즈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다 있습니다. 시험은 2학기 통틀어서 지문이 길고 생각해야하는 문제와 계산해야하는 문제들이 섞여있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만, 시험을 칠 때, 번역기와 한 손 노트를 허용해줍니다. 척추생물학 수업과 같이 4명에서 하는 그룹 수업이 있지만 그때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p> <p>GEOL 100 HOW THE EARTH WORKS</p> <p>지질학, 3학점. 지구과학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한 과목입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합니다. 단순 암기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어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필기 위주의 수업이어서 아이패드를 필수로 들고다녔습니다. 수업 끝날 때 짬, 간단한 복습 퀴즈가 있습니다.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둘 다 있고, 한 손 노트를 허용해줍니다. 가장</p>

	<p>좋은 점수를 받은 과목입니다.</p> <p>RELIG 205 WORLD RELIGIONS</p> <p>세계 종교, 3학점. 교양으로 듣고 싶어 신청한 온라인 과목입니다. 2주마다 한 챕터씩 나갑니다. 그러나 제출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마감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 사이트에 자신의 의견을 써야하는 과제가 있어서 토론을 싫어하는 분이면 살짝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와 관련된 국제정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교양으로 듣기 좋았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ISSO라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ISSO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메일로 국제 학생들만을 위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기 때문에 메일을 유심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p>날씨</p>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계절은 한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커서 낮엔 더워도 밤에는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엔 한국과 달리 습하지 않아서 불쾌하진 않지만 햇빛이 굉장히 따가우니 선크림과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겨울은 12월 달까지 살짝 따뜻하다가 1월 넘어서 갑자기 추워집니다. 평균 -20도이지만 가끔 블리자드 경고 문자가 올 때면 -40도 까지도 내려갑니다. 전기장판과 패딩은 반드시 필수고, 룸메이트들이 겨울 부츠를 추천해줘서 눈 오고 나서 열심히 신고 다녔습니다. 봄에는 봄비가 많이 내리지만 다들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챙겨온 미니 우산 쓰고 다녔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경고 문자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p> <p>다른 도시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총기 사고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가끔씩 근처 도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문자가 몇 번 온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가 깔끔하고 조용해서 대마초와 노숙자 관련된 문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밤 늦게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플로 경찰차를 요청해 귀가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Frederiksen Court에 지원했고, 4인용 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기숙사처럼 거실과 주방, 화장실, 세탁기, 건조기는 공유로 사용하지만, 방 총 4개가 있어 한 사람 당 방 하나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룸메이트들이 조용하게 지내서 크게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숙사 단지 중앙에 작은 마트 (스타벅스+작은 식당 포함)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유용합니다. 캠퍼스 북쪽에 있어서 남쪽에 있는 건물로 수업을 들으러 가야할 때는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하지만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버스 정류소도 근처에 있어 학교 캠퍼스 혹은 시내로 나가기에 용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밀플랜을 신청하여 먹기엔 값이 비싸고 금방 물릴 것 같아서 직접 재료를 사다가 요리해 먹었습니다. 점심엔 가벼운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어먹고, 저녁에는 라면 혹은 밥솥으로 지은 밥에 큐브국,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참고로 Ames에는 한식당이 없습니다. 배달은 기숙사 주소를 찍으면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주십시다만 비싸서 잘 시켜먹진 않았습니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캠퍼스 내로 다니는 버스가 많아서 어느 기숙사에 지내던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버스가 운행하나 수가 적어서 시간을 잘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방학에도 주말처럼 운행합니다).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탑승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다녔지만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통학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버스가 시내 노선을 같이 사용해서 마트에 가거나 시내로 놀러 나갈 때도 학교 버스를 타면 됩니다. 다만 국제 공항이 있는 Des Moines 도시로 가려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합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450만원 (한국 <-> 미국 왕복)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
Fees	-	Tuition Fee는 청구되지 않지만, 과목마다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있음
<i>보험료</i>	- 학교 보험료: 151\$ (학기 당) - 해외 여행자 보험료: 2만원 (한번 당)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요구하는 보험, 여행 갈 때 해외 여행자 보험
숙소	- 임시 기숙사: \$150 - Frederiksen Court: 2,550\$ (학기 당, 4인실 기준)	오리엔테이션 시작 2-3일 전에 도착해서 임시 기숙사 사용
식비	약 350만원	-
교통비	-	-
책값	-	과목마다 다름, 종이책 보단 E-Book이 훨씬 저렴함
기타1	약 1,000만원	여행비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비자와 건강 보험은 1-2달 전에 끝내놓는 것이 편합니다. 비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친절하게 다 나와있으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 보험은 학교마다 요구하는 접종 기록이 달라서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기 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이라 할인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해서 순천향대 병원에서 접종받지 마세요. 학생 할인 없고, 개인 병원보다 비쌉니다.

아이오와 주립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되면 학생증 사진은 잘 나온 걸로 등록하세요. 학생증 쓸 일이 없을꺼라 생각해서 대충 찍은거 넣었는데 버스 탈 때마다 보여줘야한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전 준비 물품은 인터넷에 치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짐 싸시면 될 듯 합니다.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짐이 약 1.5-2배 정도 늘어나있기 때문에 귀국까지 생각해서 짐 싸세요. 그리고 혹시 한국 관련 선물을 주고 싶다면 미국 가기 전에 챙겨서 가세요. 저는 열쇠고리 챙겨갔는데 선물 받은 사람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돈 많이 모아가세요. 갈 곳은 많은데 물가가 비싸서 짧게 놀러만가도 100-200백만원 정도는 금방 깨집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떨어져 지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리웠네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한 궁극적인 목표가 졸업 후 미래 방향성이었는데 목적에는 어느정도 나아간 것 같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문화와 음식 등을 좋아하는 저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겨울 방학, 귀국 전 여행을 갔던 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역시 한국과 많이 다르고 배울 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수업 중간 중간에 눈치 보지 않고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보는 용기가 많이 부러웠네요. 미국에서 지내면서 길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고 인사를 건네는 문화가 정말 인상깊었고, 문을 잡아주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한 가지 후회하는 점은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영어권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영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작년보다는 향상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오리엔테이션 (아이오와 주 의사당)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시계탑



척추생물학 (지하 표본실)



대학 농구 경기 (아이오와 vs 휴스턴)



학교 잔디밭에서 찍은 오리온 자리



서부 여행